

# 새해림호 원양승선실습 출항

### 군산대 해양수산관리전공 학생들, 도쿄에서 군산항까지 30여일간 항해

국립군산대학교는 27일, 군산항 다목적관리부두에서 2023학년도 원양승선실습 출항식을 개최했다. 다목적관리부두는 실습선 새해림호 전운부두로, 학생들은 출항식과 함께 도쿄(일본), 하코다테(일본), 군산항까지 30일간 약 2,600해리(약 4,815km)에 달하는 장기간 항해를 하게 된다.



올해 원양승선실습에는 해양산업운송과학기술학부의 해양수산관리전공 및 기관공학전공 학생 35명, 지도교수 2명, 승무원 25명 등 총 62명이 참여했다. 승선실습에 이용되는 새해림호는 우리나라 한진중공업에서 건조되었고, 2019년에 국립군산대학교에 도입되었다. 총톤수 2,996톤, 전장 96.45m, 형폭 15.00m, 형심 7.60m, 항해속력 14노트, 순항거리 8,000해리, 최대 승선 인원은 110명으로, 최첨단 항해 및 기관설비, 해양조사 장비들을 갖추고 있어, 차세대 해양수산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실습기간 동안 해양수산관리전공 학생들은 과학어군탐지기를 이용한 서해역에 대한 어장탐색, 트롤조업 실습을 통한 어종 식별, 어획 어류의 종조성 및 변동 조사 연구에 참여해 어업 관리능력을 함양하고, 국제해상충돌에 방위, 선박조종기술, 레이더 항법, 전파항해, 지문항해, 천문항해, 해상교

통관제, 해상인명안전설비관리기술을 익히며 고급항해사의 자질을 연마하게 된다. 기관공학전공 학생들은 선박 주기관, 보조기계, 자동제어 및 시퀀스 제어, 공기조화기, 냉동기, 보일러 취급 등에 관한 실습을 하고, 주기관운전, 보조기관 및 해양조사, 어로기기에 대한 실무 능력과 현장 지식을 습득하며 고급 기관사의 자질을 배양한다. 출항식에 참여한 이장호 총장은 "국립군산대학교 원양승선실습은 1982년 303톤급 제1해림호로 시작되어 올해 42회차까지, 수많은 해양수산인재를 배출해오면서 대학의 전통이 되었다. 기라성같은 선배들이 국내 해양수산 분야 곳곳에서 활약하면서, 해양수산 전문가로 거듭날 후배들을 기다리고 있다.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30일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자"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가 지역 축제관광 산업의 발전모형을 개발하고 지역축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7일 군산 축제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로 거듭나길"

### 군산시, 축제 활성화 포럼 개최... 축제 전문가·추진위 등 참석

군산시가 지역 축제관광 산업의 발전모형을 개발하고 지역축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7일 군산 축제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연구발표자로 나선 김현환(전)문화체육관광부차관, 안태기 광주대 교수, 이희성 단국대교수 등 국내 축제전문가 11명, 군산시12년여 행축제추진위원회 위원 및 TF 위원, 장년서포터즈, 축제학교 수료자, 시 축제추진부서 실무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김현환 전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의 문화관광축제의 비전과 미래의 기초연설을 시작으로, 안태기 광주대학교 교수의 '시간여행축제 문화관

광축제 진입 전략방안', △이희성 단국대학교 교수의 '군산 축제 자원화·활성화 전략', △류재현 축제감독의 '군산 축제 프로그램 발전방안', △장진만 축제감독의 '군산 축제 공간 구상 전략의 주제 발표 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순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축제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군산시 각종 축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오늘 나온 추진방안들을 검토 반영하여 군산의 축제들이 시민들의 실질적 공감과 소통속에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

## 군산 산북동 일원, 도시침수예방사업 본격 추진

### 저류시설·펌프시설 연계 해역 직접 방류 침수대책 방안 마련

군산시는 산북동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도시침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북배수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27일 시에 따르면 군산 서측에 위치한 산북동은 과거 농업용을 위해 간척한 매립지로 지대의 높이고 배수계획이 당시 간척지 및 농업 기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게 설치된 저지대 지역이다.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라 산북동에 도시 면적이 증가하고 대규모 주거지역 등이 자리를 잡았으며 빗물

을 처리하기 위한 여러 기반 시설들이 설치됐으나 집중강우와 해수면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면 저지대로 인한 우수의 정체 및 통수 능력 부족으로 근본적인 침수피해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간 시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13년부터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하수도 정비대책을 수립해 기존의 방식인 관로용량 검토에서 벗어나 경제적이고 과학적인 유역 단위 침수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저류시설과 펌프시설 등과 연계해 해역으로 직접 방류할 수 있는 침수대책 방안을 마련했다.

산북동 일원에 국비 347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96억원을 들여 연장 5.8km의 관로를 정비하고 1만톤을 수용할 수 있는 빗물 유수지와 1분에 400톤을 서해로 방출할 수 있는 펌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2020년 예산을 확보해 한국환경공단과 협력, 2020년 6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해 급선 하천가에 공사를 착수, 오는 2025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해수위 상승과 저지대인 자연적인 조건을 극복하는 근본적인 침수 대응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시 친환경 쌀, 수도권 학교급식 판로 '탄탄'

익산 탐마루 친환경 쌀이 탄탄한 수도권 학교급식 시장 판로를 확보하면서 명품쌀로 인정받고 있다. 27일 시는 서울시 노원구 학교급식에 재선정되어 오는 9월부터 2년간 노원구 98개 초·중·고등학교에 익산 탐마루 친환경 쌀 600여 톤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원구를 비롯한 은평구, 성북구,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 수도

권 학교급식으로 2년간 2,200여 톤의 익산 친환경 쌀을 공급하게 됐다. 시는 이번 노원구 학교급식 공급을 위해 지난 4월 노원구 학교급식 친환경 쌀 공급 입찰에 참여하여 1차 서류심사를 통과했다. 이어 지난 달 25일에 학교급식 현지실사팀이 탐마루 친환경 쌀 가공 경영체인 삼기능협에 방문해 생산·도정시설관리, 작업장관리, 차량관리 등을 2차 현장평가했다.

이어 지난 22일에 실시된 3차 평가(품평회)에서는 150여 명 평가원의 식미 테스트를 거치는 등 모든 평가에서 고득점을 얻어 노원구 학교급식 친환경 쌀 공급이 확정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급을 계기로 수도권 급식시장에 공급을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